76종 서류에… 각종 규제에 치여

“어린이 보육 이러단 망친다”

광주 어린이집 원장 토론회 불만 봇물

“무려 76개 종류의 장부나 서류를 챙기느라 어린이들을 제대로 챙기기 힘든데, 행정기관에서 학부모 가정에 일일이 전화해 어린이집에서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친절히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모임인 (사)광주시보육시설연합회와 광주시보육정보센터가 28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모 웨딩홀에서 개최한 ‘미래보육사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육 시설장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임희숙 서구 중앙어린이집 원장은 “반별 1명이상, 80% 미만의 어린이를 보육하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묶여 신입원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령에 따른 반별 정원과 교사 배치에 시설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육아동이 반별 정원의 80% 미만일 때도 교사 인건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희 희망어린이집 원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근무상황부 등 모두 76종류의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하는 바람에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하면 제대로 어린이들을 돌볼수 없다”며 “그렇게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면 전담 사무원을 지원하든지 서류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장은 또 “내년 보육교사 인건비는 월 10.1% 오르는데 반해 보육료는 2.5% 상승하는데 그친다”며 “인건비 지원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황재만 빛사랑어린이집 원장은 “광주의 김OO원장은 유치원을 하다 영아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물 한쪽에 설치했는데, 자율권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일일이 학부모들에게 전화하는 행정기관 때문에 할 말을 잃었다”며 “유치원에 비해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영석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대다수 보육시설은 감독청의 비전문적 규제위주의 감독행정으로 인해 책임있는 보육 경영을 하기 어렵고, 보육의 질 저하까지 우려된다”며 “유치원보다 더 낮은 연령, 더 많은 시간, 연중 보육을 수행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전담하는 행정요원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갖춘 자가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초중고 영어 학업수준 대도시-읍면 차이 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영어 과목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업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지난해 10월19~20일 실시한 200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초등 6학년의 영어 우수학력자 비율이 대도시는 64.7%, 읍면은 47.6%로 대도시가 훨씬 높았다. 반면 기초학력 및 기초미달자 비율은 대도시 18.1%, 읍면 30.0%로 읍면이 훨씬 높았다.

중학 3학년의 영어 우수학력자 비율은 대도시 22.1%, 읍면 10.3%, 고교 1학년의 영어 우수학력자 비율은 대도시 14.7%, 읍면 9.2%였다.

영어 평균점수 역시 초등 6학년의 경우 대도시 166.86점, 읍면 162.63점, 중3의 경우 대도시 261.73점, 읍면 259.04점, 고1의 경우 대도시 362.57점, 읍면 358.70점으로 특히 초등학생의 영어성적이 도시와 농촌지역간에 차이가 컸다.

교과별 평균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6학년의 경우 사회, 과학, 영어점수가 전년보다 0.12~2.89점, 중학교 3학년은 국어, 수학, 과학점수가 전년보다 0.55~1.21점,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 영어점수가 전년보다 1.05~2.5점(사회는 전년과 동일)씩 올랐다.

학년·교과별 우수학력자 비율 역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고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주로 사회, 수학, 과학에서 우수학력자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우수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자의 경우 초6, 중3, 고1의 모든 교과에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눈길 운전 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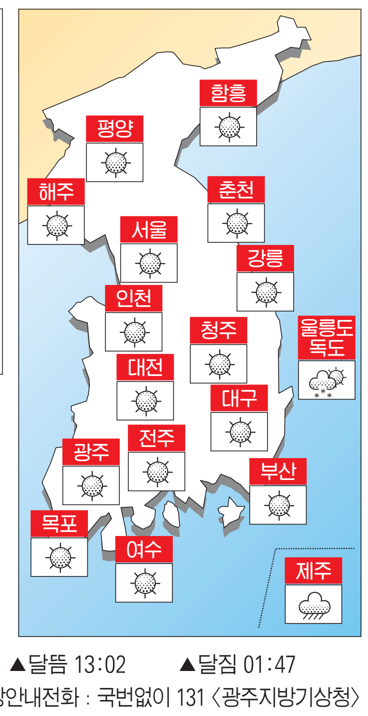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많고 눈이 오겠다.

12월 29일 (음 11월 10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6~3℃
목 포	구름조금	-4~3℃
여 수	구름조금	-3~5℃
완 도	구름조금	-3~4℃
구 례	구름조금	-8~4℃
해 남	구름조금	-7~4℃
장 흥	구름조금	-7~4℃
고 흥	구름조금	-6~5℃
순 천	구름조금	-7~3℃
영 광	구름조금	-6~3℃
진 도	구름조금	-4~4℃
전 주	구름조금	-8~1℃
남 원	구름조금	-10~1℃
정 읍	구름조금	-9~1℃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3.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목 포 밀물〈 09:09 21:20 썰물〈 01:51 14:31

여 수 밀물〈 04:13 16:27 썰물〈 10:14 22:52

▲해뜸 07:40 ▲해짐 17:29 ▲달뜸 13:02 ▲달짐 01:4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토)	31(일)	1/1(월)	2(화)	3(수)	4(목)
날 씨						
최저/최고	-5/5	-1/8	0/9	0/9	1/10	3/8

쉴 틈 없는 ‘출동 119’ 화재 특별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광주 동부소방서 대원들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공무원 782명·소방차량 143대를 동원해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폭설 등 자연재난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도 벌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립공원 입장료는 없어지는데…

시설이용료는 20% 인상

국립공원 입장료가 내년 1월부터 없어지지만 대피소 및 야영장 이용료와 주차료 등이 성수기에는 20% 이상 대폭 오를 전망이다.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등산객 숙박시설인 대피소 이용료는 현행 1인당 7천원에서 8천500~9천원으로 오르며 야영장 이용료는 4천500원(4~6인 기준)에서 5천500원으로 인상, 이용 시설별로 2천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어 기존 입장료(1천600원)보다 더 많이 들수 있다.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하루 4천(일반 승용차)~6천원(대형버스)에서 5천~7천500원으로 오른다.

여름철(7-8월) 및 가을 단풍철(10-11월)에 공원 내에서 숙박하거나 승용차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은 입장료를 낼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 국립공원 주차장은 모두 121곳으로 연간 100만명 가량이, 대피소(20곳)와 야영장(36곳)은 한해 각 10만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등산 해맞이 불 피우지 마세요”

광주시 자연보호 당부

“무등산 해맞이 모닥불 피우지 마세요”

광주시는 28일 “해마다 무등산 등 광주인근 산에서 새해맞이를 하면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산불이 나는 등 산림피해가 많다”며 ▲모닥불 피우기 ▲나뭇가지 꺾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31일 밤부터 새해 1일 오전 9시까지 무등산·금당산·어등산·옥녀봉 등 광주 인근 9개소에 250여명의 자연보호 회원 등을 배치해 모닥불 피우지 않기 등 자연보호활동을 벌인다.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 무등산 등 5개소에 부상자 대피소와 응급구조반을 배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맞이를 하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모닥불을 피울경우 산불 등 산림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새해 첫날에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새해 계획을 설계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보조금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집유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28일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유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신라동아어린이집’ 운영자 조모(49)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건비 등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 이를 자비로 구입해야 할 버스 구입 등에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그러나 “허위로 교부받거나 전용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어린이를 보육한 것처럼 꾸미거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구청으로부터 7천800여만원을 편취하고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5차례에 걸쳐 허위영수증 처리를 통해 운영비, 간식비 명목으로 구청에서 지급된 5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검 사무감사 ‘최우수’

개청이래 처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이 2006년 대검찰청 정기사무감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상명 검찰총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대검 감찰부가 전국 19개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벌인 검찰 수사·행정 사무감사에서 전 부문 최고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지검의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개청이래 처음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의 종각’ 일대서 새해맞이 축제

31일 밤 10시30분부터

광주시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 일원에서 2007년 새해 맞이 시민축제를 개최한다.

새해 1월1일 새벽 0시 30분까지 개최될 축제는 식전 및 식후 축하공연, 제야 ‘민주의 종’ 타종, 풍등 날리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축하공연에는 크라잉 넛, JK 김동욱, A-브릿지, 메이비, 박진도, 김용림, 이용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한다.‘민주의 종’은 박광태 시장·강박원 시의회 의장 등 각계 대표 8명이 나서 33회 타종한다.

이 기간 동안 전일빌딩~구 한국은행 4거리 구간의 교통이 통제된다. 시는 축제 참가 시민들을 위해 1일 새벽 1시까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